

사이버 범죄로부터 알버타 주민 보호

2026년 4월 14일

새로운 사이버 범죄 전담 태스크포스는 알버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갈취와 디지털 사기 증가 문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알버타 전역의 가정, 노인, 기업을 대상으로 금전적 착취를 시도하며 심각하고 지속적인 공공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태스크포스는 기술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사기, 신원 도용, 갈취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사기 수법은 대개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사기의 근원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전역에서 갈취 위협 사례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사기범들의 갈취를 막기 위해 알버타가 범주 차원의 통합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키 아메리(Mickey Amery) 법무부 장관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사이버 사기, 신원 도용, 갈취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이슨 스테판(Jason Stephan) 레드디어-사우스 지역구 주의원 및 사이버범죄 태스크포스 위원장

범부처 태스크포스는 법률, 기술, 소비자 보호, 법 집행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구성원에는 법무부, 공공안전 및 긴급서비스부, 서비스 알버타 및 규제완화부, 기술 및 혁신부, 그리고 정부 간 및 국제 관계부 대표들도 포함됩니다. 태스크포스 구성원 상세 명단은 alberta.ca [사이버범죄 태스크포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사칭, 협박 또는 기만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허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범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해당 권고안은 소비자 보호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입법 및 규제 방안과 함께 연방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간략한 정보

- 만약 귀하가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연락하십시오.
 - 지역 당국이나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에 신고하십시오.

관련 정보

- [알버타의 사이버 보안](#)
-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 사기 유형](#)
- [Canadian Anti-Fraud Centre](#)